

프로폴리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대한 항균 효과

서울프로폴리스(주)
허용갑 상무

어린이 3명중 1명 감염

헬리코박터는 1700년 전 남미의 미이라에서 발견될 정도로 오랜 기간부터 인류와 함께 공생해 왔다. 이 균은 한국인에게도 낮은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성인은 2명중 1명이 감염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는 3명중에 1명 꼴로 감염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의 생활 문화와 깊다. 과거에 귀여운 손자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음식을 씹어서 입에 넣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이 균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식생활 문화가 국물을 좋아 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모습

습관 때문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나누워 먹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그 예로 체육고 학생(43.2%)과 일반고 학생(22.7%)들을 조사한 결과 단체 생활을 많이 하는 체육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2배 이상 감염률과 빈혈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헬리코박터 감염은 철분 흡수까지 방해해 난치성 빈혈을 일으켜 학습장애, 성장장애까지 영향을 준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란 무엇인가

1979년 호주 병리학자 위렌이 만성 위염환자의 위점막 내에서 나선균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학계에 발표를 했다. 그 뒤 우리나라에서도 유산균음료 광고로 낮은 마살 박사가 1982년에 균의 배양을 성공하여 의학계를 놀라게 했다. 이전에는 Ph1~2의 강산으로 덮인 위속에 세균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라는 용어는 마치 위벽을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3~4의 나선으로 된 것이 헬리콥터 프로펠라로 흡사하다고 헬리코(helico)라고 했고 몸체가 되는 세균(bacter)과 십이지장 입구 부위인 유분부(pylori)에서 발견되어 유래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헬리코박터를 1급 암유발인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연구결과 헬리코박터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2배 위암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의 사망원인 2위로 꼽고 있는 위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위염, 소화궤양의 주범

강한 살균작용을 가진 위산으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은 “우레아제”라는 효소로 위점막에 있는 극미량의 요소를 분해해서 알칼리성의 암모니아를 만들어 주변을 중화시키는 기술로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헬리코박터는 위벽의 점액 단백질인 “뮤신층”을 자유롭게 지나 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고 구멍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나쁜 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학계에서는 헬리코박터에 의한 만성위축 위염이 생기면 위산이 덜 분비되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식도염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헬리코박터 예방과 치료

헬리코박터는 균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암모니아를 중화하면서 번식을 하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발생하면서 “클로파민”이라는 대단히 강한 세포 독성을 지닌 화합물을 만든다. 이것이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헬리코박터의 원인이 되는 “우리아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감염예방과 치료방법이 된다. 현재까지 제균(除菌)요법으로 사용 되는 항생요법(아목사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린)은 100% 박멸은 불가능하며 재발율도 15%에 이른다. 제균을 하기 위해서는 염산을 생합성하는 에테피아제라는 효소가 위벽에 존재하지만 이 저해제를 동시에 투여하면 염산분비를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제균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위궤양 치료제나 항생물질을 혼합하여 대량으로 투여하지 않고서는 제균 효과가 크지 않다. 1~2주 기간동안 하기 때문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투여량

이 많기 때문에 간장과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과 재발 시 항생제의 내성이 문제 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제균 방법은 헬리코박터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 일본의 나카카와네 마을 주민들은 녹차를 즐겨 마셔 헬리코박터의 감염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위암발생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폴리스의 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효과

부작용과 내성이 전혀 없는 프로폴리스가 “우리아제”를 억제한다는 연구논문이 일본 사토토시오 교수(徳島大약학대)와 권명상교수(강원대)에 의해 발표되었다. 프로폴리스에는 항궤양과 항헬리코박터 활성물질이 존재하는데 피노세브린, 카란긴, 크리신이라는 성분이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항생물질과 동일한 효능을 나타낸다. 또한 권명상 교수는 “우리아제”을 30%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는데 이는 천연소재 중 단일물질로는 상당히 높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술잔을 돌리고, 냄비의 찌개나 국을 같이 먹는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의 70%이상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식품관리인 자격 완화 추진

건강기능식품법 상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이 대폭 확대되고 출입 검사 등 기존 시도지사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위탁생산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고양시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과 세계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부 개정안이 막바지 조율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품질관리인은 식품기사로 1년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령은 제조업무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성분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업무에 종사한 1년 이상의 식품기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 원료, 성분의 제조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까지 품질관리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의견 조율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령은 또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출입, 검

사, 수거 및 포상금 지급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은 영업자 사전교육 의무화와 관련해 도서, 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영업 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신고) 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영업자 교육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문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탁생산의 범위를 모든 제조 공정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규칙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질캡셀제품의 충전, 성형, 동결건조 등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의 위탁생산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허위 과대 표시 광고 범위를 손질해 현재 의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해당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은 표시 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野, 수입식품 중금속검사 의무화 추진

한나라당은 16일 최근 중국산 '납김치' 파동 등으로 문제가 된 수입식품의 중금속 함유량 검사 등 검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온 국민이 김치 등 각종 식품의 납중독 등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분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해식품이 더 이상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식품안전기본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맹정책위의장은 "법안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검사와 원산지표시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면

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감안, 즉각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산 납김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고경화 의원은 "수입식품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 식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이미 발의했다"면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관련내용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빨리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수입식품의 안전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 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치 마련 및 검역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